

중앙위원회

2008년 9월 29일(월)

김정호 총회장 개회사로 시작

이성현 목사 사회로 교제의 시간

참가자 : 총 32명

김정호/이성현/유상렬/진세관/최성남/김희영/조병우/한상신/이창민/김중언
/김동운/장학순/김효식/김원기/나구용/임찬순
/고한승/이종민/양훈/김정근/ 이재덕/안명훈/성백은/김진아/조상연/신용철
/김영봉/심건식/김해종/강호식
송성모/김종성

개회 예배

찬송가 242 장

기도 : 김희영 목사

설교 : 나구용 목사

성경 : 야고보서 1:22-25

조직에서 신앙운동으로

교회는 조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으로 파악
신앙운동이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

신앙운동이란?

1. 천 교회/만 신앙공동체/ 십만 제자
2. 2010 까지 삼천명 교인/삼백명 사명자(제자) 교회 표어
3. 어른 1,000 명/ 아이들 500 명
4. 중요한 숫자는 삼천명이 아니라 삼백명이다.
5. 거꾸로 해 보면? - 삼백 사명자/삼천 교인

3-5 가정의 속회로 대폭 개편

속장 -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부족했다.

미국교회를 깨우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어야 한다.

- 중보기도하는 한인교회
- 중앙위원회란? : 한인총회로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월요일 저녁 회의

캠페인 소개 : 김정호 목사

회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없다.

현재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분위기는

1. 문제에 짓눌려/기죽어 일어나지 못하는 분위기
2.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위기의식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

1,000 교회 운동의 화두가 던져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다.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본격적인 캠페인이 시작된다.

장기적인 마라톤게임의 시작을 알리고 싶다.

무엇이 핵심고리가 되어야하는가?

KUMC의 현실

- 현실적인 정직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 목회자 중심의 개척교회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 자원(인적, 물적)을 집중하는 선교 전략 부재
- 이민사회에서 감리교회의 위상과 영향력 약화(교회 목회자와 성도간의 갈등)

연합감리교회 현황

연합감리교회 교인 감소이유 - 서부/동북부는 작은 교회 밀어주다 감소했다.

제자양육

교회개척하지 말아야 - 제자를 만들어라

진정한 예수 공동체를 만들어야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1. 기존 교회개척 모델로는 안된다.
2. 목회자만으로는 안된다.
3. 소그룹 사역이 기본이다.
4. 소그룹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다
5. 제자는 신앙공동체에서 성장한다.
6. 건강한 소그룹이 교회의 기초단위이다.
7. 제자와 신앙공동체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

질의 응답 시간

- 고한승 : 신앙공동체 - Small Group 인가? 이미지가 연결되지 않는다.
- 이재덕 :
 - 지금 우리의 제도와 현실속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 근본적으로 목회자의 양성이 중요하다. 반면에, 너무 자격이 엄격하므로 열정을 가진 목회자들을 놓치고 있다.
 - 목회에 사명을 발견한 자들을 위해 목회자 양성을 위한 길이 있는가?
 - KUMC 안에 신학교 운영과 양성 제도가 필요하다.
- 이종민
 - 개척교회의 장애요인인 기존 목회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 2004년 총회에서 결정된 Certified Lay Ministry Track (평신도 사역자의 사역 통로 확보) 열정있는 평신도 사역자의 현장성 인정.
 - 평신도 사역자의 훈련/발견
- 김효식
 - 본처목사 - 전도사 제도가 있는 것을 활용하지 못했다.
 - 한국사회에서 전도사와 목사의 구별이 성장 장애
 - 안수 받지 않는 사역자에 대한 목회자 인정에 대한 문제
- 장학순
 - 교단 구조를 넘어서 캠페인을 생각해야 한다.
 - 교단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외에는 누구든지 사역의 길이 열려있다고 봐야한다.
- 안명훈
 - 평신도 사역자를 발굴해서 사역할 때 자격인준 과정이 있어야한다.
 - 개척이 되었을 때 연합감리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 연합감리교회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무시하고 운영되었을 때 연합감리교회와의 연결성 문제는?
- 김정호
 - KMC, 타교단 사역자의 사역도 환영해야 한다.
- 장학순

- 예배, 선교가 있으면 신앙공동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전통적 교회의 모습인 전인사역자와 교회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 하는 캠페인은 다양한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교회로/선교지로/공동체로의 다양한 활로를 열어 놓아야한다.
- 이종민
 - 장정에 따라 지방회 안수위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나고 있다.
- 김원기
 - 사역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밖에서 아니면 안에서?
 - 은퇴 사역자들의 활용성도 확보해야 한다.
 - 은퇴 사역자들의 훈련과 양육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 서부지역 영성수양관 운동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 교단관계자들의 협력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
 - 교단이 걱정하는 건강보험과 은퇴연금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 장학순
 -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교회 개혁 모델과 한인총회의 모델은 구분되어야한다. - 평신도 중심의 교회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전인사역과 건강보험과 은퇴연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시작해야 한다.
 - 평신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성장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 김정호
 - 제자와 소그룹이 쌓여 나가다 보면 교회가 된다.
- 한상신
 - 개체교회의 지원과 연회의 지원, 한인목회강화협의회의 지원을 받는 기존 교회 개혁모델에서 벗어난 캠페인에서 선교감리사들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있다.
- 김정호
 - 데콜라/뉴난 교회의 목회자들은 건강보험과 은퇴연금에 대한 부담없이 부흥하고 있다. 회중은 차터가 되었지만, 멤버는 트랜스퍼하지 않았다.
 - 대도시 큰교회가 교회개혁에 관심이 없다.
- 최성남

- 이 운동이 다음 4 개년동안 50 개 교회개척에 목강협의 12 개의 교회와 포함되어 있는가? 그렇다.
- 안명훈
 - 앞으로 개척되어질 교회 숫자 50 개 + 200 개 + 500 개 + 기존 300 개 = 1,050 이다.
 - 연합회에서 총회로 변경되었지만, 연합회적인 정신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강제성을 띄기 어렵다.
 - 현실을 인정해서, 연합회의 성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KMC 와 합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
- 이재덕
 -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
 - KMC 와의 연합도 중요하고, KMC 의 개체교회 의식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자발적 교회개척과 신앙공동체 형성이 필수적이다.
 - 좋은 목회자 지도력이 연합감리교회 들어왔다가 진급이 안되고 안수가 되지 못할 때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안타깝다.
 - 열정을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한상신
 - 한인 교회와 목회자의 현실성을 교단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한인총회 관계자들이 대변할 수 있는 입장.
- 김원기
 - 기존 교회의 반대와 지역 교회의 반대로 연합감리교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미국 회중의 문닫는 교회 건물을 한인교회가 전략적으로 인수하여 교회 부흥
- 고한승
 - 목회자가 쉽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 적은 비용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분위기
 - 한인총회 차원의 목회자 학교를 만들어서 Local Pastor 인정하는 제도 마련 필요.
- 김희영
 - 총회를 활성화 하면 좋겠다.
 - 총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연합회의 연대성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 김원기
 - 외부에서 목회자 충당/평신도 사역자 발굴을 위해서 담임목사들의 인식변화가 중요.
- 장학순

- 개체교회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개척할 수 있다.
- 안명훈
 - 평신도 사역자 양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학교 출신으로 기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평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
- 신용철
 -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연속적인 책임자가 없는 것이 문제다. 전략의 연속적인 추진력이 없다.
 - 제안은 많은 데 책임지고 나갈 추진력이 없다.
- 김정호
 - KMC의 감리사들보다 중앙위원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
 - 지난 임원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 앞으로 이 캠페인을 같이 하는 사람이 회장이 되어야한다.
 - 내용적 팀웍은 잘되고 있다.
 - 성공의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 여기 있는 사람들부터 개척의 성공이야기를 전체 문화로 발전해야한다.
 - 모두가 캠페인의 전도사가 되어야한다.
 - 현재의 자원만이라도 극대화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 신용철
 - 15년 전 500 교회 10만 성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가?
- 김정호
 - 정확한 통계가 없었다.
 - 제자와 양육이 중심이 아니었다.
 - 지난 수년간 한인연합감리교회 중대형 교회 성장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확보되고 있다.
 - 뜻을 모으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다.
 - 지역에서 감리교 이미지가 좋게 해야 한다.
 - 동시에 부흥/동시에 개척해야한다.
- 김동윤
 - 평신도의 입장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물어봤냐?
 - 평신도 사역자의 개척교회 희망자가 얼마나 있는가?
 - 감리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 한국에서 가져온 이미지가 나쁘다. 참여하는 목회자가 없다. 잘되기 보다는 망하는 이미지가 많았다.

- 한 배를 타고 비전을 나누자고 한다면, 그 비전은 평신도 사역자에까지 전해져야한다.
- 열정과 훈련을 심어줘야한다.
- 훈련 후 내 보낼 수 있는 담임목회자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가?
- 그 후의 지속적인 후원이 가능한가?

- 이성현
 - 4-5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부흥과 성장의 연장선상에 남아있다.
 - 남은 목회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더 큰 꿈과 그림을 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일들(평신도 훈련/아카데미/KMC 연합)이 다 열려있다.
 - 그 꿈은 우리가 같이 실현시켜야 하는 꿈이다.
 - 10-15 년의 장기적인 꿈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 성백은
 - 이 캠페인이 한국 커뮤니티만을 말하는 것인가?

- 통성으로 기도한 후
 - 1. 사모님과 목회자들의 건강을 놓고
 유숙희
 홍정숙 사모님
 이성현 목사님 아버님
 김정근 목사님 마침 기도

 - 2. 캠페인을 위해 기도 후 한상신 목사님

- 한상신 목사의 마침 기도로 첫날 저녁 회의 마침

2008 년 9 월 30 일

아침 기도회 조병우 목사

찬송가 447 장

이사야 43:1, 18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1-39 : 회개의 촉구

40-66 : 약속의 땅에서 회복의 은총,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로운 소망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 사상,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야 하는 사역
그 사역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
65 억분의 1 이 아니라 65 억의 대표성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사야 41 장 8 절 - 굳세라, 도와 주리라, 붙들리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구속하신다.

플로리다 10 년 목회 후 동북부로 파송
자녀들 키우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신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타지 않고/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보호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 - 그리 아니하실찌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보호하신다.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것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는 사람이다.

평범한 물건이라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값의 차이가 된다.

유명한 사람이 쓰던 물건은 박물관의 유품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사역자라면,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가 부여된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최고는 최상의 인생을 살아야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치 말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서, 이전의 아픈 경험, 쓴 경험을 잊어버려야한다.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이다.

침체되었던 연합감리교회가, 감소의 길을 걷고 있는 감리교회가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운동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지난 여름에 읽은 책 소개 “사막에 숲이 있다.” -

중국의 마우스 사막의 진베이탕

단 1 가구가 거주

사방 수십마일 내 사람이 없다.

유일한 집 주인 인이전

사막의 3 만 부(14 만 평)을 초록 환경으로 바꿈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결정으로 딸을 버리다시피 버리다시피 줌

황사의 진원지에서 지내는 여인

강제로 버림 받았기에 사막을 벗어나려고 애쓰던 그녀가

모래에 풀시를 뿌리고, 나무를 심는 바보같은 행동

숲으로 가는 기적의 첫걸음

여기에 보내주신 뜻이 있으리라.

미친듯이 나무를 심어나간다.

둘째 아이를 나무심다 유산

양 한 마리를 팔아서 묘목 600 개를 사면, 400 개는 죽어 버린다.

나무 사들이며 사막을 개간,

20 년 후 전세계의 유명 생태환경지가 됨

6,000 평의 밭

사막을 개간하기 위해 처음 한 일

백양나무로 바람막이 울타리를 두름

5-6 미터 되는 나무로 울타리가 되었을 때 모래 바람을 막으면서

자라난 나무들이 수십만 그루의 나무 숲을 이룸

사막의 기적

방승에서 보도하기 시작하다.

모래 바람과 싸우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여인의 일대기를 다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 마터 테레사

장학순 목사 사회로 오전 회의 시작

1. 새로 오신 분 소개 : 김영봉, 심건식, 김해중
2. 김해중 감독의 캠페인에 대한 생각을 듣는 시간

80년대 초에서도

부흥과 성장, 교회개혁, 연합감리교회를 깨우는 한인교회가 되자는 생각
연합감리교 구조 속에서 한인감리교회의 존재성 미약.

Faithful 뿐만 아니라 successful 하시기를 기원
시스템이 교회 성장에 협조적이지 않은 것을 경험했다.

뉴저지에서 19개 교회의 개혁을 도왔다.

때로는 미국 사람들과 싸울 때가 있었다.

한인 교회의 성장을 교단에서는 반가워하지 않았다.

우리의 비전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다.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교회의 부흥과 건강한 교회도 필요하다.

큰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새로운 교회 개혁을 감당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감독과 감리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

선교구에 속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연회를 만들어 놓으면 이 비전에
협조할 수 있다.

1. 감독들이 반대하는 연회에서는 선교연회 구조를 통해서 일할 수 있다.
멤버십도 선교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안수
2. 기존의 큰 한인교회들도 선교연회의 협동 회원(Affiliated Member)
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기존의 한인 리더십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

• 장학순 목사의 비전 쉐어링 시간

비전이 없는 민족은 멸망하고 만다. 잠언 29:18

실천이 없는 비전 - 몽상

비전이 없는 실천 - 고역

비전과 실천이 함께하면 -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국가 지도자의 의무란 경험과 비전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메우는 일 -
헨리 키신저

교회 지도자도 같은 일을 해야한다. - 장학순

비전을 세우기 위한 세가지 질문

과거 :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현재 :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미래 :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기 정체성을 통해 세우는 비전

Insanity - 변화의 필요성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 Einstein

생명력있는 교회는 10 년에 한 번씩 철저히 새롭게 변화

캠페인에 대한

1. 김중언 목사의 응답

조직은 지원하지만, 조직을 믿지는 않는다.

조직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있는 운동이 되어야한다.

첫번째 과제 : 300 개 교회가 “하자” 하는 응답을 끌어오는 일

운동이 확산이 필요하다. “하자” 는 실천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조직으로는 50 개는 만들 수 있다. 1,000 개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없던 곳에서 300 개가 세워졌다. 그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생명이라는 정신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확산과 폭발을 이야기한다.

의논과 조직을 통해 심어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조직은 부정적이다. 평범한 것과 같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 모임이다. 그 정서를 탈피해야 한다.

태어난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 개체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잘 자라는 아이를 누가 막을 수 있나?

생명체는 신진대사가 이루어진다. 필요없는 것은 자연적으로 밀어낸다. 조직, 교단, 교회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많아야한다. 갈라지면 안된다. 좋은 사람이 나가게 된다. 불평하는 사람이 줄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가 쉽다.

평균 출석이 20% 늘었지만, 재정과 역량은 두 배 이상 늘었다. 신진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의 키는 20% 커지지만 힘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과거와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한다.

과거의 신진대사가 효율성이 떨어졌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다양성의 기관 조직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권장하지만, 1,000 개는 근본적인 생산성이 있어야 한다. 300 개 교회 중 100 개 교회가 한 교회만 개척하면된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기하급수적 방법으로 증가하는 모델을 따라야한다.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플러싱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 정서가 중요하다. 저렇게 하면 개척할 수 있구나 하는 모델의 확산이 필요하다.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살아났다는 인식이 세상에 널리 퍼져야 한다.
비전이 비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생명 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살았다는 인식만 있으면, 쉽게 될 수 있다.
쉽게 할 수 있다.
된다고 생각한다.
되는 방법을 찾으려면된다.
하면서 포기만 안하면된다.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다. 안하면 그 자체가 실패다.
시작한 다음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어느 새 거기 가 있게 된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문화가 생겨야 한다.

2. 양훈 장로의 응답 (뉴저지 연합교회/교회개발 위원장으로 한인목회강화 협의회를 돕고 있다.)

모험을 걸 가치가 있는 것 치고 쉬운 일은 없다.
인류에 공헌한 일들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도전했을 때 이루어졌다.
사람의 일은 마음을 합치면 이루어 진다.

책 소개 : 뉴욕 맨하탄의 Redeemer Church “Reason for God”

맨하탄에 개척된 교회의 정서

유대인/다인종 문화/경제 중심지/물질주의의 침단/교회가 들어갈 틈이 없는
도시에서 1989 년 교회 개척 2008 년 봄에 출석인원이 6,000 명, 맨하탄
주변에 지교회가 12 개

1. 교회 개척 전문가들의 조언

- a. 범죄가 많다.
- b. 교외로 빠져나간다.
- c. 미들 클래스의 붕괴
- d. 도시는 교회와 거리가 먼 사람들, 교회에 비평적인 사람들

갈라디아서 3 장

이 바보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맨하탄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다.

성경에는 타협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새로 태어나야 한다.

가장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선언하고 교회를 시작하다.

1. 멀티 Ethnic
2. Average Ages 30
3. 2/3 singles

마켓의 필요를 아는 사람이다.

마켓은 어디나 존재한다. 어떻게 나쁘냐에 따라 마켓을 잡을 수 있다.

2006 년 Economist

Christianity is collapse everywhere except London same as Manhattan

런던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리고 있다.

1.5 세, 2 세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1. 부모 시대의 교회 갈등을 보았다.

결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만큼, 헌신을 강조하는

복음주의로 양극화되고 있다.

수백개의 새 교회가 생기고 있다.

느낀 점

1. Potential Market for New Church is here and now

2. New and Unique

3. 말씀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한다.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복음에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4. 운동에 대해서, “왜 감리교회여만 합니까?” 공감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5. 3 세대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적 전통을 유산으로 물려 받았지만, 이제는 종교적 전통을 물려받지 않는다. 젊은 세대는 종교적 전통을 선택한다.

6. 내가 감리교인인 이유

a. 존 웨슬리 때문이다.

b. 시스템 때문이다. (모든 중요한 결정을 평신도와 목회자가 민주적으로 한다.)

7. 프로 운동선수들의 역량은 비슷하다. 그런데도 어떤 팀은 이기고, 어떤 팀은 이긴다. 무엇이 팀을 이기고 지게 만드는가? 중요한 것은 코치다. 좋은 코치는 승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코치는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코치다.

티모티 켈러 : 한인 이민교회를 지적하면서 - 한인이민교회들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 같은 교회다. (김정호 목사)

1. 예배의 아름다운

2. 지적인 복음

3. 삶의 현장에서 적용

비전 쉐어링(장학순 목사)

• 비전의 네가지 요소 / Dick Wills

1.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2. 불가능하기에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일

- 3. 분명한 일
- 4.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

세가지 존재양식

- | | | |
|-----------|----|------|
| 1. 과거 지향적 | 회상 | 쇠퇴 |
| 2. 현재 지향적 | 유지 | 정체 |
| 3. 미래 지향적 | 변화 | 부흥성장 |

나구용 목사의 응답

생명의 운동이 되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한다.
 내가 이 캠페인에 동참할지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먼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동참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 놓겠다고 준비된 사람도 동참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도 성실히 목회하는 목회자와 교회를 선전해야 한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서로를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야한다.
 잘하는 것을 보고 배우려는 열망이 있다.
 성공한 이야기를 나누어야한다.

Re-imagining evangelism
 믿음과 신앙이 일치되는 전도
 영적 여정에 이웃을 초청하는 전도캠페인

Service Evangelism
 섬김을 통한 전도
 전도를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섬기는 개념

조직의 눈치를 보면서 영혼구원의 열정을 잃어버린다.
 영적 성공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서와 통로를 만들어야한다.
 불이 있으면 불 붙게 마련이다.

조직에 머무르게 될까봐 주저한다.

김중언 : 좋은 이야기가 모아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사라지는 것이 운동이다.
 좋은 보충 설명에 감사하다.

김정호 : 이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한상신 : 어른들이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란다.

김중언 : 영적 지도자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가르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찾아오면 나눌 수 있다. 참석해봐야 공헌할 수 없다는 모임에는 나가지 않는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있다. 끌어주리라는 기대는 버려야한다. 선배들을 활용해야 한다. 정치성을 배제하고 열심히 하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한상신 : 한인총회의 역량을 부흥과 성장, 교회 개척에 집중하면 좋겠다.

총회때 금식기도도 하고, 운동의 불을 일으켜야 한다.

김정호 :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되어 신앙운동을 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연합감리교회의 부흥을 위해 우리 모두가 동참해도 부족하다.

양훈 장로 : 평신도들의 시각에서 “하루 하루 살면서 겪는 아픔들” 켈러 목사님이 8 개의 질문을 제시하고 있다.

1. 배타성 (왜 기독교 아니면 안되는가에 대한 영혼을 깨우치는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주영 현대회장 “해 봤어?” 안되면 그 때와서 못하겠다고 해야한다.

2. 젊은 세대가 관심갖는것은 사회적 정의다. 가난/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3. 실패는 옵션이 아니다. 실패하면 안된다.

김원기 : 선교감리사로서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중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다. 지난 10 년간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협력하며 사역하는 모델을 개발해 왔다. 뚜렷한 확신과 목표가 있으면 추진해 나간다. 추진할 때 본의 아니게 상처받는 사람도 생긴다.

1.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2.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풀어야 할 숙제중 하나이다.
3. 좋은 일도 사람이 싫으면 동참하지 않는다.

김중언 : 사업을 잘하는 아내, 일을 벌리는 남편, 일을 처리하는 아내, 일을 벌리는 총회장과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시작은 얼마나 좋은가? 한인총회가 벌인 일이다. 우리 모두가 뒷감당을 해야한다.

김영봉 : 지난 주 아담 해밀톤 목사가 웨슬리 신학교에 방문, 연합감리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조직에는 아니다. 1,200 명 이상의 큰교회 중심의 모임에서

1. 유능한 젊은 목회자를 길러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매년 Confirmation Class 에서 목회직에 대해 소개, 감리교회에 대해 소개하고, 그룹 내에서 다른 사람의 목회적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15-20 년 후면 달라지지 않겠는가?) 유소년 리그가 저력이다.
2. 질문
 - a. 전체모임에서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80% 이상은 도대체 부흥과 성장할 수 없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다.

의미있게 목회를 지속하는가에 대한 고민. 단상에서 하는 이야기와 실질적 목회사이에 괴리가 있다.

- b. 1,000 교회라는 비전에 모든 교회가 동참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치고 있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동참시킬 수 있는가?
- c. 리더십에 관한 문제 : 연회에서 하는 15 년동안 250 개 교회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현재도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죽이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과연 그 교회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더 큰 문제는 목회자들의 리더십에 있다면, 좋은 목회자를 발굴하고, 개혁하고 부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인 관심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 양성 시스템이 개혁 교회 성장에 맞는 리더십을 길러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 d. 숫자로 캐치 프레이즈가 나왔다. 어떻게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숫자는 사람이고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숫자에 담겨있는 정말 알맹이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종민 : 동참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 이 운동은 우리 모두의 운동이다. 변화에는 고통이 수반된다. 큰 교회의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한다. 다양한 전략과 방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평신도 사역자를 발굴하고 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고한승 : 개교회 목회도 바쁜데, 이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하는데, 어디서 부터 그 비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Connectionalism 이 감리교 정신이지만, 사실 한인교회는 가장 Dis Connect 된 공동체가 아닌가. 우리라고 하는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연결고리가 생겨야한다. 선교연회가 대안이 될 수 없다. 동참하는 교회의 규합과 헌신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필요하다.

신용철 :

- 1. 다른 교단의 예를 들면, 장로교에는 총회장이 비전을 제시하면, 풀타임 총무가 모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모두가 바쁘다보니 누구도 제도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인총회에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전임 총무제도를 두어야 한다.
- 2. 부흥운동은 성령운동이다. 한인연합감리교회 내의 감리교 부흥단을 조직해 만들어서 자비량 부흥회를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운동을 일으키면 좋겠다.

심전식 감리사의 응답

- 1. 연합감리교회의 43%가 1년 내 한 명의 새신자도 갖지 못한다. 한인교회들이 무엇인가 해 보겠다는 열정과 위기 의식을 느낄 수 있다.
- 2. 운동이란? 존 웨슬리가 시작한 것처럼, 가장 중심적인 Core가 영성과 기도로 뭉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고민하는 Holy Struggle 이 필요하다.

3. 우리의 본분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4. 연회내 한인교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 a. 8 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 b. 뉴욕 인근의 타교단에 비해서 열세/정체가 지속되고 있는가?
 - c. 우리의 제도적 문제인가? 리더십 문제인가? 목회자들이
안주하도록 만드는 제도는 아닌가?
뉴욕/뉴저지/시카고/LA 에서 정체되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모습앞에 회개하고 도전해야 한다.
5. 1,000 교회는 숫자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제자 시키는 모습을
찾아야 한다. 분가 개척의 모델을 찾아봐야 한다. EM 를 내 보내는
교회문화가 필요하다.
6. 연회내 한인교회 23 개와 57 명의 목회자가 있다. 타인종 교회
담임목사들이 새롭게 한인교회들을 개척하는 가능성도 모델이 될 수
있다.
7. 연회내 숫자가 적지만, 한인교회 있기 때문에 힘과 도전이 된다는
정서를 나누면 좋겠다.
8.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한다.
9. 지방회 평신도들과의 만남을 위해 Laity Sunday 를 마련해서
270 명의 평신도가 참석.
 - a.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평가, 나머지는 부정적인 평가
 - b. 관점의 문제
 - c. 티칭처치를 위해 포럼을 개최하는 BMCR(흑인교회)의 모델을
배우는 것도 필요
 - d. 자체적인 자원의 개발 및 나눔이 필요

이재덕 : 운동은 Grass Root 에서 일어나야 한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적
한계상황에 빠져있다.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신앙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민교회의 특성을 훈련하며, 영적으로
위로하는 모임이 필요하다.

점심은 플러싱 교회, 김중언 목사가 대접
식사기도 : 고향승 목사

오후 시간

안명훈 목사 응답

구속력있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많은 노력과 의지가 보이는 드래프트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면 좋겠다.

지금 현재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목표 숫자를만드는 것과, 흠어서 목표
숫자를 만드는 것의 차이가 있다. 작은 교회에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힘을 모으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Sustain(유지) Mode 에 있는 교회들에 힘을 낭비하면 안된다.

김정근 : 큰 교회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함께 참여하는 것을 부탁
고한승 : 부흥과 성장을 위한 보고서의 결론 중 하나가 중형교회 이상에
밀어주자는 것이라고 기억된다. 가능성있는 교회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김정호 : 중남부 동남부에서는 200 명 이상 교회를 집중적으로 도와줌, 교회
부흥을 위해서 200 명 이상 교회를 전략적으로 돕는 일을 했다.

미국 교회가 돈과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무엇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

의미와 미션(Meaning & Mission)을 주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

김정근 :

1. 1,000 교회에 대한 비전을 총회에서 들었을 때 의문을 가졌지만, 오늘
모임에 참석해서 동감하게 되었다.
2. 꿈은 불가능한데서 시작한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원대한 포부가
고무적이다. 시작이 반이다. 되고 안되는 것은 해봐야 안다. 해보자.
3. 어떻게 해야하는가? 모든 교회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100 교회도 많다. 핵심교회 36 개 교회가 있다. 이들
교회만이라도 시작하면 좋겠다.
4. 숫자에 기죽지 말자. 해 보면 한 만큼 성공한 것이다. Better than
nothing
5.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아 핵심멤버만이라도 시작하면 좋다.
6. 교회를 쇠퇴시키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

강호식

1. 적은 교민이 있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성공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아야한다. 동북부 선교구가 많이 발전했다. 소속된 목회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이 운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선교교회 목사로서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부족한 여건 가운데
작은 타운에서 목회하는 지역적 특성을 이해해야한다.
3. 그 목회자들의 열정과 영성을 위로하고, 인정해야 한다.
4. 목회적 노하우를 나누면 좋겠다.
5. 의도적으로 세워주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학순

1. 감독과 감리사에게 파송권이 있지만, 그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목회에
남아있지 않아도 된다는 서명운동을 벌이면 어떨까?
2. 물러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스스로 질문해 본다.
3. 목회자들의 권익이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 같다.

조상연

1. 이 비전을 보다 많은 시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다.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2. 기존의 전임목회자들에 의한 개척교회 사역도 인정해야 한다. 신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자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안수받고자하는 후보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 내가 선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장학순 : 개척교회의 성장사례가 늘고 있다.

김영봉 목사

2nd Campus 모델 매나사스

와싱턴 한인교회 케이스

3년전 전임 목회자의 결정으로 교회 이전 안건 부결, 메가처지로 안간다.

지교회로 간다는 결정

1. 지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지교회 계획 포기
2. 분립 개척위원회 시작 (2006년)
3. 200명을 분가시켜 건강한 교회를 개척한다는 목표
4.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문제점 최소예배인원을 내보내야 한다.
5. 담임목사가 설교하는 분가개척 모델을 제시
6. 교인총회에서 통과하여 2007년 사순절 기간동안 분립개척 자원자 모집 50명 (Permanent Commitment) 60-70 (short term commitment)
7. 현재 140 정도 모이는 자립하는 교회로 성장
8. 문제점
 - a. 누구를 따라나가겠느냐?
 - b. 현재 부목사 중에서 믿고 따라나갈 사람이 없다.
 - c. 최종 목표는 독립이지만 자연적으로 변해야한다.
 - d. 현재 상태는 지교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e. 위원회 14개월 기도와 연구로 시작했다.
 - f. 많은 고려 사항이 있다.
9. 버지니아 연회의 예, 5탈렌트 아카데미
 - a. 5년동안 헌신할 교회를 찾음 (목표 30개)
 - i. 10% 예산을 가난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
 - ii. 10% 예배인원 증가
 - iii. 10% 예산 증가 노력
 - iv. 모든 교인의 40% 소그룹 동참
 - v. 전체 교인의 5% 고백교인을 목표로 5년동안 노력
 - vi. 5년 안에 1 Faith Community 만든다.

장학순 : 교회 개척의 태도

1. 선교 공동체
2. 새로운 신앙공동체
3. 구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4. 한인목회강화협의회, 연회, 기존 교회에서 파트너십으로 개척한 성공사례 (비전교회/보스톤, 카폴레이/하와이, 뉴난/아틀란타)

5. 뉴난 교회 사례
이민자 40 가정
기아 관련 주재 가정 40 여 가정
주변도시와 연결
2006년 4월 11일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2가정을 파송하므로 시작
미국 교회의 땅에 모틀라 홈을 구입하여 예배 공간으로 활용
2008년 8월 10일 교단가입
 - a. 사역
 - b. 파트너십 : 아틀란타 한인교회, 데쿨라, 라그랜지 한인교회
 - c. 말씀묵상집, 성경공부 교재 활용
 - d. 지역 발전속도에 맞춰 한 발 앞서 개척된 교회.

6. 중북부 지역 사례
 - a. 시카고 지역의 개척교회 (윤국진 목사) 잘 성장 중

이재덕 :

1. 비전에 대해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실현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
2. 큰 교회 중심의 교회 개척
3. 기존의 제도아래서 교회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부흥과 개혁의 운동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있는 동력원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4. 80%가 되는 200백 명 이하의 목회자들에게 비전과 목회의 흐름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5. 답답함이 남아 있다.
 - a. 목회에 대한 배움의 기회가 없다. 다른 교단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마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 b.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운동과 기도하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

조병우

1. 지난 10년 동안 연합감리교회가 정체/감소 속에서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되는 기쁜일이다.
2. 구체적/실현가능한 목표가 되어야하고,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3. 1,000/10,000/100,000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한다.
4. 특히, 천 교회는 어려운 숫자다. 만 신앙공동체와 십만 제자화는 가능하다. 제자훈련하는 목사로 2002년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지금도 1 년에 2-3 차례 인도하고 있다. 평신도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은 지도자의 문제다. 평신도 지도력 개발이 중요하다.

5. 지금은 가정교회로 목회 형태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6. 각 교회들이 부흥성장을 통한 활성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한다.
7.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면 좋겠다.

장학순

비전실현의 단계

1. 잉태
2. 배아
3. 발표
4. 성장
5. 성숙
6. 재생산

변화를 위한 전략

- | | |
|----------------------|---|
| 1. 긴급성 확립 | establishing Sense of urgency |
| 2. 협조체제 구축 | creating the guiding coalition |
| 3. 비전과 전략 | developing a vision & strategy |
| 4. 비전의나눔 | communicating the change vision |
| 5. 힘을 실어줌
action | empowering members for broad based |
| 6. 단기 목적 달성 | generating short term wins |
| 7. 변화 공고히함
change | consolidating gains and producing more |
| 8. 문화속에 뿌리내림 | anchoring new approaches in the culture |

- 이 캠페인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상신 :

1.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좋은 다큐멘트를 간단히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요약문/브로셔를 만들면 좋겠다. 총회장과 임원들이 각 지역총회를 방문해서 비전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2. 한인 감독님들과 감리사님들이 연회나 교단에 이해시키는 데 협조했으면 좋겠다. 실천단계에서 협조자가 되어 주시면 좋겠다. 시작부터 교단의 협조아래 나가야 한다.
3. 누가 중앙위원이면, 각 지역총회 회장들, 그 지역의 지방 감리사들, 리더들에 의도적 초청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정호

1. 중앙위원회 소집 배경 : 우리의 현실은 구속력이 없다. 사람만이 힘이다. 자비로 왔다. 우리의 소망과 힘은 여기 계신 분들이다. 자화상을 어떻게 가지는가가 중요하다. 모임에는 주인은 없고 객만 있다.
2. 상실된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3.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이다.
4. 교회 사이즈에 관계없이 동참할 수 있는 파트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5. 나도 미쳐보고 싶다. 우리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다.

김동윤

1. 감동과 거룩한 부담을 받고 간다.
2. 시카고 제일연합감리교회가 다시 일어났다. 교회에서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다.
3. 부족한 사역을 통해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싶다.

김중언

1.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
2. 다시 모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3. 총회장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한 전임 총무가 필요하다. 연합회 회비에서 하지 말고, 큰 교회에서 십만불 내서 월급주고 캠페인을 위한 전임 총무 제도를 사용하자.
4. 오늘 결의해서 만들어놓고 가자
5. 2 만불을 플러싱제일교회에서 낼 수 있다.

안명훈

1. 현재 목회강화협의회 사무총장/선교감리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펀드가 되면 어떻겠는가?

김정호

1.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이 많이 투자해서 모두가 협력해서 일하면 좋겠다.
2. 풀타임 사역자를 모시도록 하는 것에 찬성한다.

송성모

1. 1,000 교회라고 했을 때 놀랐다. KMC 에서 연회 구성 감독배출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감으로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개척교회가 이루어지려면, 공동체가 리더를 중심으로 떨어져 나오지 않는 이상 교회가 자립하기 어렵다.
3. 개척교회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4. 한정적인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미션 홈 프로젝트 등의 자원을 활용한다.

신용철

1. 캠페인과 한인교회의 일을 함께 맡아서 처리하는 전임 총무를 두도록 수정동의

김정호

구체적으로 캠페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을 나누고

동의 : 이 캠페인을 위해 전임 유급 총무를 두어서 하되 자원하는 교회가 십만불 예산을 매년 만들어서 유지하면, 홀리싱 제일교회에서 2 만불을 낼 수 있다.

김희영 : 공감대 없이 유급직원을 세우면 괴리감이 생긴다.

안명훈 :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전이라고 재청한다.

중앙위원회의 결정하기는 어렵다. 임원단에서 결정해서 총회에서 통과하면 좋겠다. 10 만불 약정을 받고, 연차총회에서 통과하면 좋겠다.

김영봉 : 십만불 모금 운동을 모금하되 적절한 수준에서 많은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김정호 : 중앙위원회에서 십만불 약정하면 일이 쉽게 진행될 수 있다.

김영봉 : 약정은 각 교회에 회장이 연락해서 담당하도록 하면 좋겠다.

안명훈 : 정말 필요한 개척교회에 쓰이는 돈이 되어야한다.

김중언 : 모금 방법에 대해서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지정한 곳에 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

안전 1. 전임 총무 제도를 두는 것을 제한 한다.

동의 : 김중언

재청 : 안명훈

만장일치로 통과

신용철

회의 종결 동의

재청 : 김효식

송성모 : 총회법에 따른 회칙 변경에 대한 총회 결의사항을 임원회에서 처리해주었으면 좋겠다.

폐회예배

9/30 오후 5시 35분

찬송가 280 장

최성남 목사 기도

성경 : 창세기 26: 22-25

설교 : 김정호 목사

삶의 조건이 나뉘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셨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시었다.

이삭이라는 인물이 우물을 세 번이나 파야하는 기가막힌 상황속에서 더 이상 방해울 안 받으니, 하나님이 장소를 넓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르호봇의 노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다.

인생의 허망/고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해 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물을 파야 한다.

우물은 보이지 않는 곳이다.

우물을 팔 때 미래가 열렸다.

통성으로 기도

김중언 목사의 마침 기도 후 주기도문으로 마침